

# R&D기반, 친환경 미래 선제대응... 2026년까지 매출 12조

## 금호석유화학그룹

‘지속성장기업 전환’ 청사진 제시  
고성능 EPDM, 바이오실리카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가속화  
내연기관 축소 EP제품 중심 확대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며 미래 비즈니스 선점 준비에 나선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지속성장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포하고 2026년까지 친환경사업 매출 2조, 신사업 매출 2조를 포함한 총 매출 12조 달성을 목표로 수립하며 그룹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측은 “이를 위해 각 계열사는 R&D를 기반으로 환경친화적 고부가가치 제품을 발굴하고 관련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내연기관 축소 등 메가트렌드에 적극 발맞춰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찬규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R



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 연구원들

/금호석유화학그룹

&D를 바탕으로 미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키우고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내연기관 축소...미래 모빌리티 변화 대응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내연기관 축소 트렌드에 따라 친환경 모빌리티와 관련된 사업 포트폴리오에도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중이다. 그 중 대표적인 부분은 전기차 리튬이온배터리(LIB)에 첨가제로 사용되는 CNT(탄소나

노튜브)다. 주로 리튬이온배터리의 양극 도전체로 사용되는 CNT는 기존의 카본 블랙 소재보다 전도도가 높아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향후 리튬이온전지 고객사 판매 확대를 위한 제품 품질 개선과 R&D 활동을 이어가며 CNT 제품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역시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P는 일반 플라스틱 보다 가볍고 내충격성·내열성 등이 우수한

고기능성 플라스틱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전기차 부품용 EP 제품을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자사의 ABS 등 기존의 합성수지 제품과 혼합할 수 있는 EP 제품 중심으로 물성 개선 연구도 진행하며 전기차 시장 본격화에 대비하고 있다.

금호폴리켄 역시 고기능성합성고무 EPDM과 열가소성 수지(TPE)의 일종인 TPV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친환경차 소재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선다. 금호폴리켄은 친환경차 시장에서 차량 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고성능 EPDM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 고부가가치 EPDM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어 자동차 호스 등에 사용되는 TPV 제품군도 물성 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켜 향후 친환경 소재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방침이다.

### ◆기존 사업에 친환경 ‘더하기’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친환경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상을 발표한바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이오실리카’를 적용한 친환경 고무 복합체 제조 사업이

다. 기존의 규사(珪砂) 기반의 실리카 대비 쌀겨에서 추출한 실리카, 즉 바이오실리카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어 친환경 공법으로 분류된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고기능성 타이어용 합성 고무인 SBR에 ‘바이오실리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품질 안정화를 진행 중이다. 금호석유화학은 향후 바이오 실리카 SBR을 국내외 주요 타이어, 신발 제조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재활용 스타이렌(RSM, Recycled Styrene Monomer)을 SBR에 적용한 Eco-SBR도 친환경 사업의 일환이다. RSM은 폐플라스틱(폐PS)을 열분해 처리하여 추출한 친환경 원료로, 이를 타이어의 내마모성과 연비 성능을 향상시킨 합성고무 SBR에 적용하면 성능뿐 아니라 친환경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바이오 실리카 적용 SBR과 Eco-SBR를 통해 타이어 시장에서 친환경 원료에 대한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에 친환경 제품과 관련된 기회 요인을 모색하며 사업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현대차 ‘아이오닉5’, 獨서 폭스바겐·볼보 제치고 또 1위

AMS, 유럽 신형 전기차 비교 평가  
바디, 파워트레인, 경제성 등 최고점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는 물론 기술 경쟁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호평을 받은 아이오닉 5, 코나 일렉트릭 등을 앞세워 올해 2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50% 가량 증가했다. 이같은 판매량 상승은 전기차 기술력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유럽의 신형 전기차와의 비교 평가에서 또 한번 최고 경쟁력을 입증했다. 아이오닉 5는 독일의 대표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이하 AMS)’가 최근 진행한 전기차 모델의 비교 평가에서 폭스바겐 ID.5와 볼보 폴스타2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호평은 최근 유럽 현지에서 출시된 폴크스바겐의 전기 쿠페형 SUV I



현대차 아이오닉 5

D.5를 큰 점수차로 앞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 비교 평가에서 아이오닉 5가 폭스바겐 ID.5와 맞붙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MS는 아우토 빌트(AutoBild),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과 함께 신뢰성 높은 독일 3대 자동차 매거진 중 하나로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다.

이번 비교 평가는 아이오닉 5, ID.5, 폴스타2 등 3개 전기차 모델을 대상으로 ▲바디 ▲안전성 ▲컴포트 ▲파워트

레인 ▲주행거동 ▲환경 ▲경제성 등 7가지 평가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아이오닉 5는 평가항목 중 ▲바디 ▲파워트레인 ▲경제성 등 3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총점 617점으로 588점을 받은 폴스타2와 586점을 기록한 ID.5를 제치고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위, 3위와의 점수차는 각각 29점, 31점으로, 새롭게 출시된 전기차들 마저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이오닉 5는 실내공간, 다용도성/기능성, 전방위 시계 등을 평가하는 바

디 항목에서 비교 차량 대비 가장 높은 점수(108점)를 받았으며 전기차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파워트레인 항목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인 90점을 받아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판매 가격, 잔존가치, 수리 비용, 연료 비용 등을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 부문에서도 최상위 점수(132점)를 기록했다.

AMS는 “아이오닉 5는 빠른 충전 속도뿐만 아니라 높은 공간활용성, 부드러운 주행감이 장점인 전기차”라고 평가했다. 아이오닉 5는 이번 우승으로 AMS에서 진행한 4번의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해외 주요 전기차들을 모두 압도했다.

지난해 10월 폴크스바겐 ID. 4를 이긴데 이어 올해 4월 테슬라 모델 Y, 포드 머스탱 마하-E를 제쳤으며, 6월에는 아우디 Q4 40e-트론, 메르세데스-벤츠(EQ) EQA 250, 르노 메간E-테크 EV60와의 비교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양성윤 기자 ysw@



뉴욕 타임스퀘어 폴더블 옥외광고

## 삼성전자

### 글로벌 주요 지역에 위대한 언팩 예고영상

삼성전자가 전세계에 ‘위대한’ 폴더블폰 출시를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29일부터 전세계 주요 랜드마크에 갤럭시 언팩 2022 옥외 광고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광고 장소는 언팩이 열리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와 함께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중국 청두 타이쿠리 지역, 태국 방콕 씨암 센트럴 월드 쇼핑몰 등이다.

삼성전자는 미리 예고했던 것과 같이 ‘세상을 더 위대하게 만들 새로운 폴더블 폰’ 공개를 예고하며 ‘더 위대한’이라는 트레일러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이번 광고는 갤럭시 폴더블 제품이 단순히 새로운 폼팩터를 넘어 사람들의 모바일 사용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스마트폰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제품을 통해 일하고, 즐기며, 삶의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 LG전자, 올레드TV 포제 등 라이프스타일 특별 전시

더콜란샴 플래그십 강남스토어  
고급가구·인테리어와 조화이뤄

LG전자가 ‘오브제컬렉션 포제’ 디자인을 직접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LG전자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서울 롯데백화점 강남점 ‘더콜란샴 플래그십 강남스토어’에서 특별 전시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TV를 앞세운 라이프

스타일 특별 전시로, 프리미엄 고객들에 LG올레드컬렉션 포제 등 올레드 TV가 제시하는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LG전자는 LG 올레드 오브제컬렉션 포제가 더콜란샴의 고급 가구·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룬 모습을 소개한다. 42~77형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올레드 TV로 구현된 잉카 일로리의 미디어아트 작품 ‘포레스트 오브 아이즈(Forest

of Eyes)’도 감상할 수 있다.

LG 올레드 오브제컬렉션 포제는 실제 집 안 공간처럼 꾸며진 매장 2층에 다양한 인테리어 가구와 함께 배치됐다. 정형화된 TV 설치의 고정관념을 깨는 아름다운 디자인이 고급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룬다.

외관에 패브릭을 적용해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인테리어 소품처럼 깔끔한 인상을 준다. 스탠드 안쪽 공간에

전원선을 넣어 감출 수 있고, 뒷면 히든 스페이스에 셋톱박스, 멀티탭 보관용 전용 액세서리를 설치해 깔끔하게 주변기기를 수납할 수도 있다. 이런 세심한 디테일로 기존 TV들과 달리 거실 가운데 설치하더라도 깔끔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잉카 일로리는 화려한 색감과 경쾌한 디자인의 작품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예술가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영국 런던의 첼시, 메릴본 등에 위치한 더콜란샴에서 LG전자와 협업한 특별 미디어아트 전시를 선보인 바 있다. /김재용 기자